



제 2048호 2018. 10. 14 연중 제28주일

제1독서 : 지혜서 7,7-11

제2독서 :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4,12-13

복 음 : 마르코 복음서 10,17-30 또는 10,17-27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littlemm1@hanmail.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살** 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느님 나라에 가는 방법

어느 부족은 원숭이 사냥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해요. 주머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고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원숭이는 그 구멍에 손을 넣어 과일을 집는데, 사냥꾼이 오면 꼼짝달싹 못하고 붙잡힐 수밖에 없다고 해요. 왜냐면 그 과일을 놓기만 하면 손을 빼서 도망갈 수 있는데도, 원숭이는 욕심이 많아서 그 과일을 놓을 생각를 못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계명도 잘 지키고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을 때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비유말씀을 하시면서 부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지는 않아요. 부자 중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가진 것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느님도 멀리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앞서 이야기한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도,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하느님 나라를 포기했잖아요?

작은마음 친구들은 어떤가요?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나요? 좀 더 놀고 싶고, 자고 싶은데도, 그 게으름을 뿐리치고 기쁜 마음으로 성당에 미사 드리러 갈 수 있나요?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괴롭힘당하는데 자칫 나도 그 친구처럼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뿐리치고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나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친구들이에요.



담당_ 이서진 엘리사벳

작은마음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아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과 주변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착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8성동 광진지구 자양2동 성당
소영섭 야고보 신부님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

바늘구멍에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에서 ○○에 들어갈 말은?

- ① 나귀 ② 낙타 ③ 상어 ④ 노새



♥ 예수님 사랑 나도 할래요 ♥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 (여호수아기 10,1-15)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 체덱은,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여 그곳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루살렘 임금은 헤브론 임금, 야르롯 임금, 라키스 임금, 에글론 임금에게 전갈을 보냈다.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브온을 칩니다.”

이렇게 아모리족의 다섯 임금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모여 올라와서, 기브온을 향하여 진을 치고 싸움을 걸었다.

* 아모리족 다섯 임금을 찾아보세요.



- 예루살렘 임금은 머리띠를 하고 있어요.
- 헤브론 임금은 곱슬머리가 아니에요.
- 야르롯 임금은 하늘색 옷을 입고 있어요.
- 라키스 임금은 수염이 없어요.
- 에글론 임금의 머리색은 검정 색이 아니에요.

담당_ 송민경 도로테아



◆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 (지혜 7,9) ◆

제23회 작은마음 잔치

수상작 발표

찬미예수님, 하느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내려앉은 계절이에요.

작은마음 친구들이 보내준 수많은 글과 그림들을 만나보니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마음 가득 채워졌어요.

총 500여 점의 글과 그림 중 단 몇 작품만 선정해야하는 것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친구들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좋은 작품들이 많았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의 주제인 ‘내가 실천한 하느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며,

그 마음을 글과 그림에 실어준 친구들을 뽑았답니다.

작은마음 잔치에 보내주신 관심에 무척 기뻤고, 감사했어요.

★ 작은마음상 글- 서초동 성당 3학년 김연후 글라라

★ 희망상 그림- 신내동 성당 유치부 이정민 라파엘라

그림- 신내동 성당 유치부 정지호 요셉

★ 소망상 글- 논현2동 성당 2학년 박효원 마리스텔라

그림- 잠실 성당 1학년 서지우 클라라

★ 믿음상 글- 등촌1동 성당 4학년 정예서 스텔라

그림- 응암동 성당 4학년 조민서 스텔라

★ 사랑상 글- 장안동 성당 6학년 김연주 글라라

그림- 월계동 성당 5학년 김성태 안토니오

★ 한마음상 신내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작은마음 잔치 시상식 안내>

*일시: 2018년 10월 21일(일) 오후 2시

*장소: 혜화동 가톨릭 청소년회관